

구보를 따라 청계천변을 걷다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의 작품 공간

채 호 석 ·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 교수



인공낙원

‘문학 속의 청계천’이라는 글제를 받았으니 청계천으로 가 본다. 조금 과장해 서울 사람의 반이 들렀다는 청계천을 이제야 가보니, 게으름인지 무심함인지 어쨌건 한량없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실상 속내는 그게 아니다.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지 않았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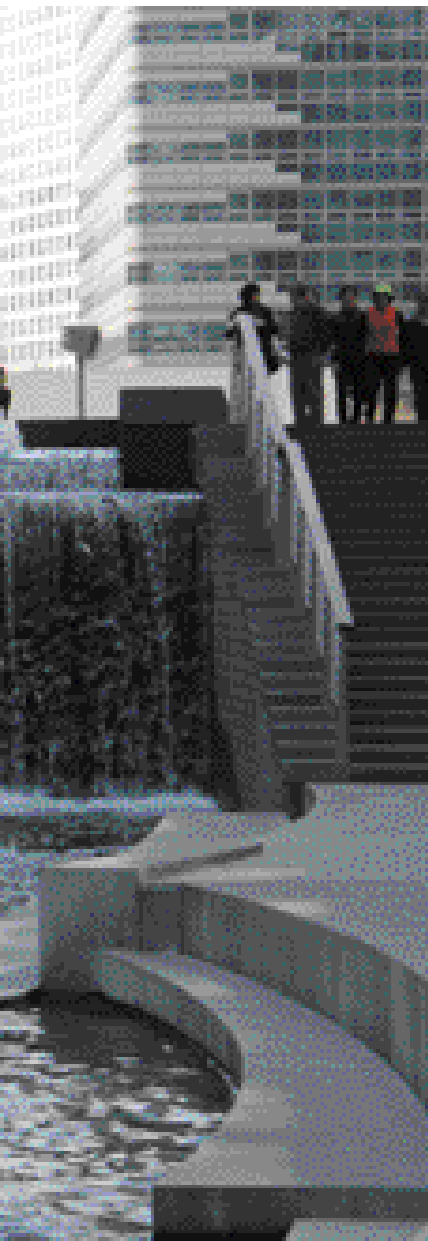
얼마 전만 해도 청계천에는 내(川)가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두꺼운 아스팔트,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 고가도로뿐. 오로지 ‘기능’ 만이 남아넘치고 있을 뿐이었다. 좁은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가도로. 기능과 효율성만이 문제되었을 뿐이니, 거기서 물론 ‘천변(川邊)’의 풍치를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 이전에 거기에 어떤 풍치가 있었느냐 하면 물론 그런 아



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천변의 낮은 가옥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청계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수도였다(어렸을 때의 짧은 한 시절, 나도 그 속에 있었다). 개천이 덮이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놓이면서, 도시의 하수는 그야말로 ‘아래(下)’로 내려가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났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하수는 그곳을 떠나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근대 혹은 모더니티라는 이름으로 칭송되는 기능의 미학, 효율성의 미학이 그 하수구 위를 덮고 있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간만에 다시 가 본 청계천에는 더 이상 하수도도, 하수도를 덮었던 ‘복개(覆蓋) 도로’라는 하수도 뚜껑도 없었다. 거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정교하게 고안된 보행자 전용도로와 제법 그럴 듯한 다리들이 있었다. 심지어 징검다리조차 있었다. 확실히 새로운 청계천은 나름대로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들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 걸으며 새로운 세계를 누리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청춘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마도 밤이었다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이 틀림없다.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청계천에는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이미지들이 뒤섞여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고 있을 뿐, 어느 곳에서도 무언가 실체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실상 거기에 흐르고 있는 물도 ‘청계천’은 아니다. 물이 흐르면서, 물이 흐르기 위해 물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길을 위해 물이 흐르고 있었다. 청계천에 흐르는 것은 물길을 위한 물이었으며, 또한 청계천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위한 여덟 개의 테마였다. 도시의 새로운 테마파크. 청계천은 그렇게 거대한 이미지 복합체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인공 낙원(人工樂園). 그게 청계천에서 가지게 되리라 생각했고 또 실제로 가지게 된 느낌이었다.





청계천에는 더 이상 하수도, 하수도를 덮었던 '복개(覆蓋) 도로'라는 하수도 두껍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 걸으며 새로운 세계를 누리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청춘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은 아름다웠는데, 나는 그 속에서 즐거울 수 없었다. 예견했던 바였다. 나는 아마도 흥겨워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에 입때껏 청계천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 있는 것은 이미지뿐이었다. 보드리야르식으로 말한다면 '시뮬라크르'로 뒤덮인 세계였다. 청계천에는 수많은 이미지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이미지들이 뒤섞여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고 있을 뿐, 어느 곳에서도 무언가 실제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실상 거기에 흐르고 있는 물도 '청계천'은 아니다. 물이 흐르면서, 물이 흐르기 위해 물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길을 위해 물이 흐르고 있었다. 청계천에 흐르는 것은 물길을 위한 물이었으며, 또한 청계천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위한 여덟 개의 테마('청계천 8경'으로 이름 붙여졌다)였다. 도시의 새로운 테마파크. 청계천은 그렇게 거대한 이미지 복

복원전 청계천(왼쪽)

청계천 복개공사(오른쪽)
새롭게 '복개'된 청계천 밑으로, 아마도 언젠가는 그들을 덮었던 '새롭게 탄생한 청계천'이 겹쳐질 것이다. 그때까지 덮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문학의 몫이다. 1930년대의 청계천이 박태원에 의해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 청계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정교하게 고안된 보행자 전용도로와 제법 그럴 듯한 다리, 심지어는 징검다리조차도 있다.

합체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인공 낙원(人工樂園). 그게 청계천에서 가지게 되리라 생각했고 또 실제로 가지게 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청계광장의 지극한 모더니티에서 ‘사과나무 거리’와 버들 숲의 자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소비하고 싶은 모든 이미지를 거기서 향유할 수 있었다.

도시의 매혹과 거부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문학 속의 청계천’ 하면 도시의 산보객(散步客) 구보 박태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청계천변에 있는 그의 집에서 나와 하루 종일 청계천을 중심으로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니다 밤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박태원이 태어나 자란 곳은 청계천변 다옥정(茶屋町), 곧 지금의 다동(茶洞)이다. 종로에서 광고를 건너 오른쪽이 다동이다. 예전에는 다방골이라고 불렸는데, 다도(茶道)와 다례(茶禮)를 주관하던 관청인 다방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어쨌건 천변의 집을 나와 가깝게는 종로와 명동, 멀게는 동대문과 서울역까지를 걸어서 또는 전차를 타고 서울의 중심가를 순례하는 박태원은, 앞서 말한 ‘인공낙원’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청계천변의 현대인들을 닮았다. 어떤 점에서 그들의 선조라고나 할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박태원은 끊임없이 현대의 이미지에 매혹된다. 종로의 화신백화점과 엘리베이터가 그렇고, 전차, 카페가 그러하다. 이 매혹적인 현대의 풍경 속으로 구보는 걸어 들어간다. 물론 그는 청계천을 바라보

지 않는다. 청계천은 그저 그가 살고 있는 곳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930년대 청계천에는 매혹적인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청계천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서울의 하수도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구보는 청계천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당대의 모더니티의 극한이다. 구보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바라보는 모더니티가 소비의 세계임은 분명하다. 생산하는 자는 없이 소비만이 행해질 뿐이다. 어쩌면 이는 1930년대 기형적으로 성장한 식민지 경성의 불행일지도 모른다. 아니 모든 도시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기생적 존재들의 세계.

구보는 이 식민지 경성이라는 도시의 모더니티에 매혹되지만, 그러나 그에 빠지지는 못한다.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문학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의 세계에서 세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구보에게는 돈이 없다. 문학을 한다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몇몇 전업 작가를 제외하고는 양립하지 않았다. 20세기 초에 이미 문학을 한다는 것은 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문학은, 문학을 하는 인간은 돈의 세계 밖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신의 작품이 상품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에서, 바로 그 상품(문학)은 돈으로 환전되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가장 좋은 방법이야 글쓰기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전업 작가가 되는 길이었다. 몇몇 작가가





조선시대 청계천 준설공사(왼쪽).

청계 고가건설(오른쪽)

1930년대 청계천에는 매혹적인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청계천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서울의 하수도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구보는 청계천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당대의 모더니티의 극한이다.

간신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이태준),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두 번째 방법은 좋은 부모나 좋은 ‘아내’를 얻는 길. 부모나 아내의 노동에 기생하며 세상에 오불관연(吾不關焉)할 수도 있으리라(김동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문학’을 포기하는 길. 대중소설과 상업소설을 내세우며 팔리지 않는 문학, 읽히지 않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길(김말봉). 아니면 문학 하기를 포기하고 돈을 버는 데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다. “서정시인조차도 황금광이 되는 시대.” 그것이 현대였고, 모더니티의 세계였다.

아직 구보는 어느 쪽에 속해 있지도 못하였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의 어머니는 돈이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왼쪽).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는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1795년 2월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재의 수원인 화성에 다녀와서 그 의전 행렬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림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자 벽화인 이 그림은 광고와 삼일교 사이 왼쪽 석벽에 있다.

하랑교 태(오른쪽). 하랑교는 1959년 청계천 복개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다리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돌로 된 구조물이 보존되어 있다.

없었으며, 구보는 아직 명성을 얻은 작가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문학’을 버릴 위인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구보가 지니고 있는 매혹과 거부가 경성이라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극한에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였으리라. 우리는 이를 두고 식민지 자본주의의 모더니즘이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편입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이 어정쩡함이야말로 모더니즘의 본령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산보/배회 후에 남는 것은 극심한 피로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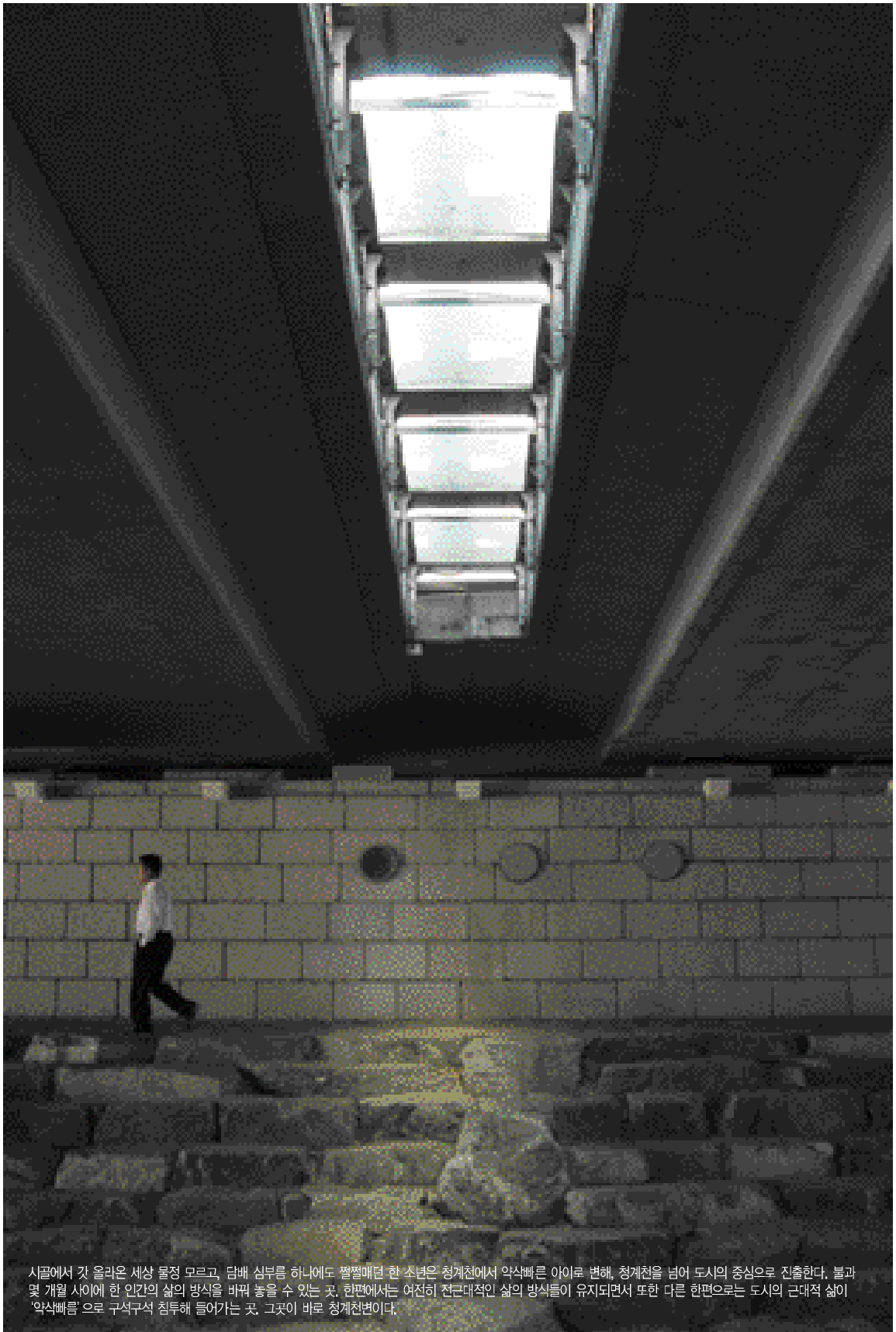
열린 창으로 세계와 소통하다 : ‘천변풍경’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는 생활이 없다. 구보가 하는 배회/산보가 생활일 리 없다. 구보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가 거리에서 보는 것들은 생각할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삶이기는 하지만 구보에게는 삶의 표피만이 보일 뿐이다. 삶이 있기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겠기에 삶이 눈에 띄는 것이다. 그의 생각들은 경성 밤거리만큼이나 화려(?)하지만, 정작 새벽의 술집 뒷골목의 을씨년스러움은 보지 못한다(이것을 본 사람은 도쿄 긴자(銀座) 뒷골목의 이상(李箱)이었다).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집으로 돌아간 구보가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건 『천변풍경』에서였다. 이발소 어린 조수 ‘재봉’의 눈으로, 이발소의 열린 창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한다. 이제 비로소 ‘청계천’이, 천변이 눈에 들어온다.

청계천은 하나의 경계였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갈려 조선인 중심의 ‘북촌’과 일본인 중심의 ‘남촌’이 갈리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청계천은 식민지 조선에서 거대한 두 세력이 서로 마주하는 하나의 경계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 상권인 종로와 일본 상권인 혼마치(本町, 지금의 충무로), 메이지쵸(明治町, 지금의 명동)가 대립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김두한이 있을 수 있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는 생활이 없다. 구보가 하는 배회/산보가 생활일 리 없다. 구보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가 거리에서 보는 것들은 생각할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삶이기는 하지만 구보에게는 삶의 표피만이 보일 뿐이다. 삶이 있기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겠기에 삶이 눈에 띄는 것이다. 그의 생각들은 경성 밤거리만큼이나 화려(?)하지만, 정작 새벽의 술집 뒷골목의 을씨년스러움은 보지 못한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세상 물정 모르고, 담배 심부름 하나에도 찢쩍대던 한 소년은 청계천에서 악삭빠른 아이로 변해, 청계천을 넘어 도시의 중심으로 진출한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곳.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삶의 방식들이 유지되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대적 삶이 '악삭빠름'으로 구석구석 침투해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청계천변이다.

그러나 청계천은 또한 점점이었다. 급속하게 팽창해가는 식민지 조선의 서울 경성에서 청계천은 근대적인 것과 전근대적인 것이 만나는 점점이었으며, 엉켜 돌아가는 소용돌이였다. 『천변풍경』의 시작이 ‘빨래터’ 장면인 것은 의미가 있다. 빨래터야말로 전근대적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소문’으로 돌아다녔고, ‘소문’은 항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넘겨다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소통의 공간인 빨래터는 붕이 김선달처럼 빨래터를 선점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업적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런 빨래터처럼 청계천은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유동하는 도시와 시골의 점점이었으며, 근대와 전근대의 점점이었다.

이발소의 재봉이 내다보는 세계는 한약국의 세계이며, 면회원의 세계이며, 또한 카페의 세계이기도 하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세상 물정 모르고, 담배 심부름 하나에도 찢절매던 한 소년은 청계천에서 약삭빠른 아이로 변해, 청계천을 넘어 도시의 중심으로 진출한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곳.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삶의 방식들이 유지되면서 또 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대적 삶이 ‘약삭빠름’으로 구석구석 침투해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청계천변이다. 도시적 향락을 대표하는 카페에는 소박맞은 여인들과 팔려온 여인들이 전근대적 세계에서 근대적 세계로 넘겨진다. 그러나 천변의 카페가 고급 술집일 수는 없는 것, 그곳에 들르는 사람들조차 간신히 도시의 변두리에 몸을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천변의 유지는 천변의 카





1950년대 청계천변의 판잣집(왼쪽)

1920년대 청계천변 팔레타(오른쪽)
『천변풍경』의 시작이 '팔레타' 장면인 것은 의미가 있다. 팔레타야말로 전근대적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소문'으로 돌아다녔고, '소문'은 항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넘겨다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팔레타처럼 청계천은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유통하는 도시와 사물의 접점이었으며, 근대와 전근대의 접점이었다.

페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근대와 전근대가 중첩되었던 곳이 바로 천변이다.

『천변풍경』에서 박태원은 비로소 '삶'에 접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자본주의적 도시의 삶의 어두운 면들을 훑기 바라보았던(구보는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한 여인네에게 광고를 읽어준다. '여급 구함.') 박태원은 『천변풍경』에서 이 중첩된 삶을 그리기 시작한다. 소설은 최재서의 말처럼 '카메라의 눈'으로 시작하지만('리얼리즘의 심화와 확대'), 그러나 박태원은 곧 카메라의 '냉정한' 눈을 버린다. 렌즈야 차가울 수 있지만, 카메라를 든 사람의 눈은 그럴 수 없는 것. 박태원은 곧 천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카페의 여급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준다. 비록 이 동정어린 시선이 식민지 조선의 '모더니즘'의 한계일지는 모른다. 아니 한계가 맞을 것이다.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박태원은 '이야기'에 끌려가면 안 되었고, 그런 '구질구질한' 세계에 몸을 담그면 안 되었을 것이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처럼 도시에 대해 매혹과 거부라는 이중의 시선을 던지고, 적당하게 한 발을 뺀 채로 있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다시 청계광장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나가본 청계천은 여전히 '인공낙원'이었다. 사람들은 한가로이 이 새롭게 주어진 '명소'를 즐기고 있었고, 여전히 연인들은 사랑을 즐기기에 바빴다. 아마도 얼마쯤 지난 후에는 이 인공낙원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이 인공낙원의 양 옆으로는, 옛날과는 같지 않은, 그러나 크게 다르지도 않은 그런 삶들이 펼쳐져 있다. 인공낙원과 그 옆의 '삶'의 접점에서 새로운 물길 옆에 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닌 그 위의 도로를 걸으면서 '새로운 도시의 명물, 청계천'에 덮인, 북개도로를 걷어내면서 새롭게 묻어버린 삶과 역사를 생각해 본다. 1950년대의 구질구질한, 위태롭게 천변에 걸쳐 있던 판잣집의 삶을, 그리고 "노동 기본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불태운 전태일을, 그리고 청계 피복 노조를 생각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롭게 '복개'된 청계천 밑으로, 자신의 물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이끌어온 물 밑으로 잠겨 있다. 아마도 언젠가는 그들을 덮었던 '새롭게 탄생한 청계천'이 견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덮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문학의 몫일 것이다. 1930년대의 청계천이 박태원에 의해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